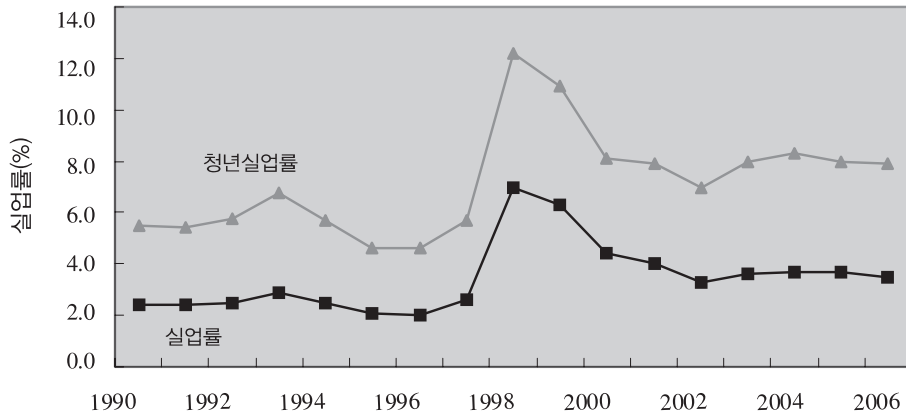


청년실업과 대학졸업 유예

● ● ● 채 창 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대학졸업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4년제 대학의 휴학생 비율은 IMF 이전인 96년의 25%에 비해 2005년에는 무려 7%나 상승한 32%에 이르고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하여 28%에서 37.9%로 상승해 무려 10% 가까이 상승했다고 한다. 휴학생의 비율은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라는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여기에서 청년실업의 원인과 졸업 유예문제 및 대응방안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자.

청년실업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IMF 위기 직후인 1998년에 12.2%까지 급상승했던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의 극복과 경기회복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2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청년실업문제의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과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2002년의 7.0%에서 2006년에는 7.9%로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그림 1] 실업률 추이

청년층의 취업여건이 좋지 못한 탓에 취업까지의 소요기간도 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졸업·중퇴자가 임금근로자로서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12개월에 달한다. 2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도 15.5%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I. 청년실업의 원인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청년층 인적자원의 양성 및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와 청년층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무엇보다 지난 30여 년 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6년 현재 4년제 대학졸업생 수는 27만 명으로 1975년의 3만 명에 비해 9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전문대학의 경우 그 증가추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1975년에 2만 명에 불과하던 졸업생 수가 2006년에는 22만 명으로 11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렇게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가 이들 고학력자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되지 않는 탓에 수급불균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가 질의 저하를 수반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교원 1인당 재학생 수 추이를 보면 이런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모두 지난 30여 년 간 교원 1인당 재학생 수가 오히려 확대되어온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문대학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육이 기업의 요구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기업현장의 요구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 77.8%, 4년제 인문사회계열 졸업생에 대해서는 76.3%, 4년제 이공계열 졸업생에 대해서는 62.3%로 나타났다. 대졸 신입사원들의 전체적인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5점 만점에 평균 3.09점에 불과하였다(채창균 외, 2006).

이렇게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청년인력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청년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수요측의 문제를 보면, 우선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된 상태이다. 197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추세를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 7~8%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급기야 4% 후반대로 하락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장률이 저하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력도 감소하여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취업자증가율을 GDP증가율로 나누어서 계산되는 고용탄성치를 보면 1998년의 0.35에서 2003년에는 0.16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경제가 1% 성장할 때 1998년에 7.3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면, 2003년에는 3.6만 명의 고용창출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불과 5년 사이에 동일한 경제성장이 가져다주는 고용창출 정도가 절반 수준으로 저하된 것이다.

문제는 청년인력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의 구조 자체가 청년층에 덜 친화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기업의 경력직 채용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신규 대학졸업자를 채용하여 기업에서 적절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면서 장기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용관행이었다면, 이제는 기업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즉 경력자를 더 선호하는 형태로 고용관행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또 청년층이 취업하기를 선호하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졸자가 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대기업이나 금융관련 기업, 공공행정이나 공기업 등과 같은 '괜찮은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의 14.8%에서 2005년에는 13.5%로 크게 줄어들었다.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오히려 구인난에 직면해 있는 인력의 불일치 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부의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부족인원은 약 20만 명인데, 이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층실업자의 다수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청년층의 실업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취약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70% 수준에 불과하며, 도산위험 또한 대기업보다 높아 고용의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청년층의 높은 눈높이도 문제이지만, 이를 무조건 타할 수만은 없는 현실인 것이다. 청년층의 눈높이조절을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문제가 완화된다면, 청년실업의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II. 대학졸업 유예문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청년층이 대학졸업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 결과(2007년 5월)에 따르면, 4년제 졸업생의 경우 졸업소요기간은 평균 5년 2개월이었으며, 전문대학졸업생의 경우 2년 11개월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졸업생의 경우 대략 1년 2개월, 전문대학졸업생의 경우 11개월 정도 늦게 졸업하고 있는 셈이다.

휴학경험자의 평균 휴학기간은 4년제 졸업생의 경우 3년 3개월, 전문대학졸업생의 경우 3년 2개월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수치에는 남자졸업생의 군복무기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군복무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을 보기 위해서는 여자졸업생의 평균 휴학기간을 살펴보는 것이

〈표 1〉 대학졸업 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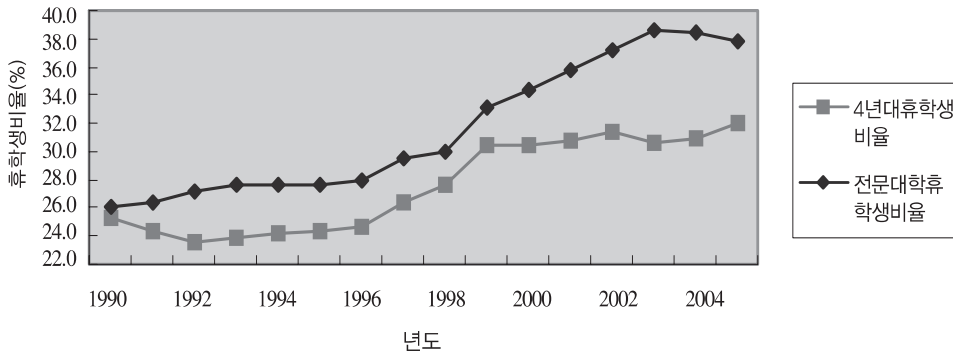
		대 졸		
		3년 11개월	3년제 이하	4년제
2007. 5.	남자	5년 1개월	2년 11개월	5년 2개월
	여자	3년 2개월	3년 11개월	6년 5개월
			2년 3개월	4년 4개월

※ 자료: 통계청(2007년 5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

〈표 2〉 휴학경험자의 대학재학 중 평균 휴학기간

		대 졸		
		3년 3개월	3년제 이하	4년제
2007.5.	남자	3년 6개월	3년 2개월	3년 3개월
	여자	1년 5개월	3년 5개월	3년 7개월
			1년 6개월	1년 5개월

※ 자료: 통계청(2007년 5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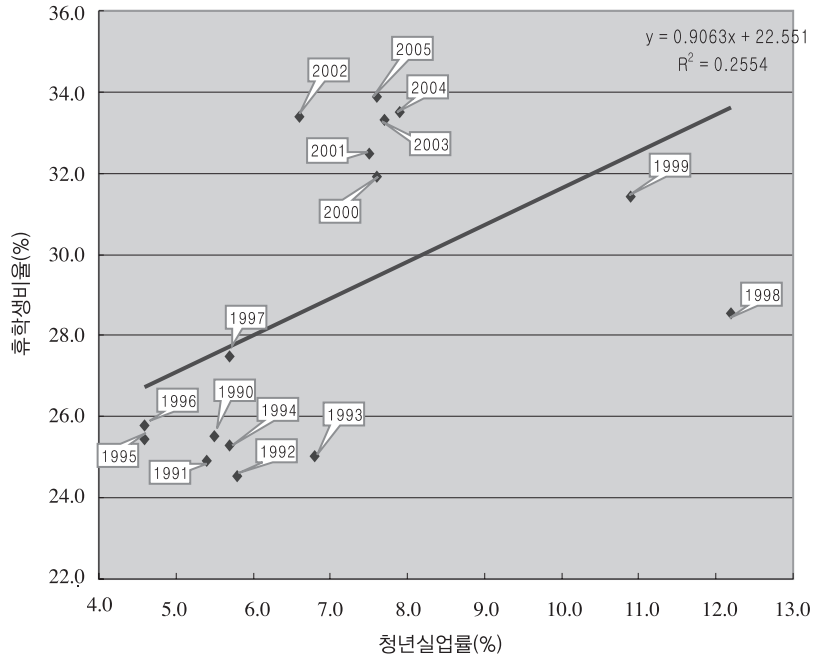
〔그림 2〕 휴학생비율의 시계열추이

유용하다. 여자 휴학경험자의 평균 휴학기간을 보면 4년제 졸업생은 1년 5개월, 전문대학졸업생은 1년 6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휴학경험자의 경우 대략 1년 6개월 내외의 시간을 군복무 이외의 다른 사유로 휴학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유 중에는 취업준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휴학문제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인가?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기 이전(1998년 이전)까지는 휴학생비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 25% 내외, 전문대학생의 경우 27% 내외의 수준에서 소폭 변동하는 양상이었다. 이렇게 안정적이던 휴학생비율이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진 199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년제 대학의 2005년 휴학생비율은 32.0%에 달하는데, 이는 1996년의 25%에 비해 무려 7%p 상승한 것이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휴학생 증대 정도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2005년 현재 휴학생비율은 37.9%로 1996년의 28%에 비해 무려 10%p 가까이 상승하였다.

1990년 이후의 청년실업률과 휴학생비율의 추이를 동시에 살펴보면(〔그림 3〕 참조), 두 비율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년실업률이 높아질수록 휴학생비율 역시 높아진다. 이는 휴학생비율의 증대가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채용실태조사 결과(채창균 외, 2006)에 따르면, 절반 정도의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취업재수생보다는 졸업 후 곧바로 입사지원한 층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채용관행이 대학졸업을 늦추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그림 3] 휴학생비율과 청년실업률의 관계

<표 3> 대학재학 중 휴학사유

(단위 : %)

	청년층 졸업자	휴학 경험 있음	휴 학 사유				기타	휴학 경험없음	
			병역 의무 이행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 경험	학비 (생활비) 마련			
2007.5.	대 졸	2,889 (100.0)	(36.3)					(63.7)	
	3년제 이하	1,551 (100.0)	(27.7)	(74.4)	(14.6)	(10.0)	(12.8)	(11.2)	(72.3)
		1,337 (100.0)	(46.2)	(86.0)	(6.6)	(4.2)	(13.5)	(10.4)	(53.8)
	4년제	1,337 (100.0)	(46.2)	(66.4)	(20.1)	(14.1)	(12.4)	(11.8)	(53.8)

※ 주: 휴학사유에 대한 구성비 합은 복수응답으로 인해 100을 넘음.

※ 자료: 통계청(2007년 5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

로 판단된다. 특히 채용시 취업재수생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은 대졸자들이 주로 취업하고자 하는 대기업일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채용시 재학생과 취업재수생을 모두 동일하게 대우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종업원 수 50~99인 기업과 100~299인 기업의 경우 각각 55.9%, 55.3%로 나타난 반면, 300~999인 기업에서는 44.5%,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47.1%로 크게 낮아진다).


실제 휴학사유를 보더라도 취업 및 자격시험준비나 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경험을 위해 휴학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4년제 대학졸업생의 경우 그 비율이 높아, 각각 20.1%와 14.1%에 달한다.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지 못해 취업재수생이 될 경우 원하는 기업에의 입사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된다는 판단이 대학생들로 하여금 졸업을 늦추더라도 재학기간 중 취업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취업재수생으로 남아 있을 때의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도 졸업을 늦추는 쪽으로의 의사결정을 촉발하고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또 고교 단계까지의 진로 지도가 불충분해 자신의 적성 등에 부합하는 학과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한 탓일 수도 있다.

III. 맺음말

휴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휴학생이 늘어나면 그만큼 청년인력의 효과적 활용이 저해되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인 청년층의 취업연령(평균 25세)을 낮추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소위 '2+5' 전략)와도 상충된다.

휴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교육이 정해진 재학기간 동안 재학생의 취업능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규적인 대학교육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능력을 충분히 갖추 수 있다면, 취업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휴학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대학졸업생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국적 정책노력도 요청된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채창균 외(2006).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와 신입사원 교육훈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2007).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

채창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방문교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 대학생 능력평가제도 도입방안, 국가인적자원개발론, 2006년도 인적자원개발사업 조사분석 평가 등 다수가 있다.